

(가) 북찬가 (이광명) / (나) 화당설 (장유)

(가) 나무껍질 지붕 엮고 흙 이긴 방에 / 두문(杜門)하고 홀로 있어 / ㉠ 승예(蠅蚋)는 창을 덮고 / 조갈(蚤蝨)은 벽 위에 가득한데
유배지의 열악한 거처. 파리·모기(승예)와 벼룩·지네(조갈)가 들끓는 광경으로 화자가 놓인 부정적 현실을 감각적으로 환기한다.

37번 정답 근거(㉠): ㉠은 화자의 '부정적 현실을 환기하는 대상'. '내적 갈등 심화'(㉢)나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으로 읽으면 함정.

(가) 앓은 곳의 해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 잠든 밖에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을 지새우며 한숨과 눈물로 이어지는 나날 — 그리움과 상심이 일상이 된 상태.

38번 ㉡ 근거: (나) 신공보의 '괴로운 상념이 마음속에 교차하'는 것과 나란히 놓이는 '내면적 고뇌'의 지점.

(가) ㉠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 할까 /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보거니 서신이나 틈틈이 보내어도 / 기다린들 통(通)이 올까 오
노라면 달이 넘네

꿈에서만 뵈는 노모. 편지조차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그리움을 풀 길이 없다.

설의적 의문형 어미('~할까', '~올까')를 거듭 써서 답답한 내면 정서를 직접 토로한다 — 35번의 공통점(㉠)과 직결.

36번 주의: ㉠~㉣은 모두 적절한 진술로 처리된다. 정답은 ㉣(㉠)이므로, 시어 하나하나를 붙잡기보다 (나)의 ㉣이 무엇을 천명과 연결했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관건.

(가) 내 마음 헤아려보니 노친의 생각이야 일리야 무엇하리 / 여의(如意) 잃은 용이요 키 없는 배 아닌가 / 추풍(秋風)의 낙엽(落葉)같이 어디로
가 정박할까 / 집안도 파산(破散)하고 친속(親屬)은 흩어지니 / 길에서 방향한들 갈 곳이 전혀 없네

여의주 잃은 용, 키 없는 배, 가을 낙엽 — 삶의 기반을 잃고 표류하는 자기 처지를 잇달아 비유한다.

38번 ㉣ 근거('키 없는 배'=방향). 동시에 ㉠ 함정 지점: '낙엽같이 갈 곳이 없다'는 대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한탄이 맞지만, (나)의 글쓴이가 '바깥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뒷부분 진술은 본문과 어긋난다.

(나) 이는 걸모습만 사람일 따름이지, 그 속마음은 이미 ㉡ 금수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니, 이 어찌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성정과 습관, 학문은 사람 하기에 달린 일인데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감수하는 세태를 비판한 대목.

37번 정답 근거(㉠): ㉠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존재'.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나) ㉢ 만물은 모두 바뀌거니, 사람도 나고 죽거니, 젊어지고 늙어가는 것은 모두 천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성정이라든가 습
관이 일탈되는 것, 그리고 학문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일 뿐이지, 천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글의 대전제 — '천명에 속한 변화'(생사·노쇠)와 '사람에게 달린 변화'(성정·습관·학문)를 갈라 놓는 이분 구도.

36번 정답 근거(㉣): 천명과 무관하다고 못 박은 것이 바로 '성정이 바뀌는 것'. 이를 '자연의 섭리'로 뒤집어 놓은 선지가 오답.

(나) 거백옥(簾伯玉)이 예순 살에 자기를 바꾸었다는 말에 느낀 바가 있었으니, 마침내 화당(化堂)으로 자신의 호를 삼았다.

예순에 서쪽 변방으로 귀양 간 신공보가 괴로운 상념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호를 '화당'이라 지었다.

고사(거백옥·공자·장자) 인용으로 인물의 지향을 뒷받침하는 '설(說)'의 전형적 논법. 제목 '화당설'의 유래이기도 하다.

38번 ㉢ 근거: 같은 유배 상황이지만 (가)는 상심에, (나)의 신공보는 자기 변화 의지에 방점이 찍힌다.

(나) 아, 공보는 예순이 되어서도 변화하려는 데에 뜻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나이 سن을 먹도록 잘못된 것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고 있
니, 공보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하다.

글쓴이의 자기 성찰 — '예순의 공보'와 '신의 나'를 대비해 부끄러움을 토로하며 글을 맺는다.

38번 정답 근거(㉠): 기쁨이 가득 차게 된 사람은 공보이지 글쓴이가 아니다. 글쓴이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한다 — 주체 바뀌치기 함정.

작품 정리

갈래	(가) 유배 가사 / (나) 고전 수필(설)
성격	(가) 애상적, 사친(思親)적 / (나) 성찰적, 교훈적
작가	(가) 이광명 / (나) 장유
시점/화자	(가) 유배지에 있는 화자(어머니를 그리는 아들) / (나) 벗 신공보를 지켜보는 글쓴이 '나'
주제	유배지에서의 고립과 사모(思母)의 정한(情恨),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바꾸려는 태도와 그에 비춘 자기 성찰(나)

특징

- (가) 의문형 어미를 반복해 답답한 내면 정서를 직접 드러냄
- (가) '여의 잃은 용', '키 없는 배', '추풍의 낙엽' 등 연쇄적 비유로 불안정한 처지를 형상화함

- (가) 달·구름·냇물·새 등 자연물을 매개로 대상 곁에 가고 싶은 소망을 표출함
- (나) 거백옥 고사와 공자·장자의 평가를 인용해 '변화'의 가치를 논증함
- (나) 타인(공보)과 자신을 대비해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자기 성찰로 마무리함
- 두 글 모두 유배라는 고립 상황을 다루되, 대응 방식(비탄 vs 자기 변화)이 같음

등장인물

- (가) 화자: 유배지에 홀로 있으며 노모를 그리워하는 인물. 집안은 파산하고 친속은 흩어짐
- (가) 학발자안(노모): 화자가 꿈에서만 뵈는 그리움의 대상
- (나) 신공보: 우계 선생 문하에서 배운 벗. 예순에 귀양 가서도 뜻을 지키고 호를 '화당'이라 지음
- (나) 거백옥: 오십에 마흔아홉 해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옛 대부. 공보가 본받는 모범
- (나) 글쓴이 '나': 쇠이 되도록 깨닫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성찰함

구성

- (가) 기: 유배지의 곤궁한 신세와 흥취 없는 나날
- (가) 승: 벌레 들끓는 거처에서 두문불출하며 한숨과 눈물로 지새움
- (가) 전: 꿈·서신·달·구름·냇물·새를 매개로 노모에게 달고 싶은 소망
- (가) 결: 표류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과, 자신만이 노모를 모실 수 있다는 안타까움
- (나) 도입: 천명에 속한 변화와 사람에게 달린 변화를 구분함
- (나) 전개: 벗 신공보의 내력과 '화당'이라는 호의 유래(거백옥 고사)
- (나) 결말: 달라진 공보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미흡함을 부끄러워하며 글을 지음

전체 줄거리

(가)의 화자는 유배지의 누추한 거처에서 두문불출하며 밤마다 한숨과 눈물로 지낸다. 꿈에서만 뵈는 노모에게 편지를 보내도 답이 오기까지 달이 넘고, 달과 구름·냇물·새에 마음을 실어 보지만 천산만수에 막혀 소식조차 알 수 없다. 여의를 잃은 용, 키 없는 배 같은 신세로 집안마저 흩어져 갈 곳이 없음을 한탄하며, 노모를 모실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데 이르러 서러움이 절정에 달한다. (나)의 글쓴이는 사람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감수하는 세태를 개탄한 뒤, 예순에 귀양 가서도 거백옥을 본받아 호를 '화당'이라 지은 벗 신공보를 소개한다. 돌아온 공보에게서 예전과 다른 기품을 느낀 글쓴이는, 쇠이 되도록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화당설」을 지어 준다.